



한달여 남은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해 연초부터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대회 등에도 출전했던 신지애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실날같은 기회를 잡아야 할 판이다.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파리행 티켓 '실날희망' 신지애·양희영 운명은?

‘파리행 주인공을 가린다’

미국여자 프로골프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 상금 1040만 달러·140억4000만 원)이 21일(한국시간) 막을 올린다.

미국 워싱턴주 서매미시의 사할리 컨트리클럽(파71·6831야드)에서 나흘간 이어지는 이 대회엔 한국 선수 21명이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2024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 이후 한국 선수들은 앞선 15개 대회에서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긴 ‘우승 가뭄’을 겪고 있다.

2000년엔 그레이스 박이 개막 후 16번째 대회인 6월 캐시아일랜드 그린스닷컴 클래식에서 첫 승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막 후 19번째 대회에서 첫 승이 나왔던 1999년에도 가까워진다.

전인자가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메이저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모로 1승의 의미가 큰 대회다.

여자 PGA 챔피언십에선 1998년과 2006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2013~2015년 박인비, 2018년 박정현, 2020년 김세영, 2022년 전인자가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미여자 메이저 PGA 21일 개막 올림픽 출전 가릴 마지막 대회 총상금 140억... 고진영 선봉대 지애·희영 티켓잡기 혼신의 힘

이번 대회에선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고진영(7위)이 선봉에 선다. 이번 시즌 8개 대회에 출전해 두 차례 톱 10에 든 고진영은 슐라이트 LPGA 클래식(공동 12위) 이후 2주 만에 출전한다.

김효주·김세영·양희영·성유진 등도 나서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신지애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지애는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랭킹 포인트를 쌓기 위해 연초부터 호주와 한국대회 뿐 아니라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33회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에 출전할 선수가 결정되는 마지막 대회다. 이 대회 이후 24일자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올림픽 여자 골프에 출전할 선수가 가려진다.

세계랭킹 15위 이내 선수들은 한 나라에서 4명까지 나갈 수 있고, 그 아래 순위부터는 한 나라에 2명씩으로 출전 쿼

타가 제한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와 2020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에 각각 4명씩 출전했던 한국은 현재로서는 세계랭킹 15위 이내가 고진영과 김효주(12위)뿐이라 파리엔 2명만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지애(24위)와 양희영(25위) 등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실날같은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처지다.

올시즌 LPGA 투어에서 6승을 끌어 담은 세계 1위 벨리 코르다(미국)는 7년 만의 이 대회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LPGA 투어 통산 14승의 코르다는 메이저 대회에선 2017년 이 대회와 올해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보유했다.

허리 부상으로 약 2개월 간 휴식을 보내다가 지난주 마이어 클래식을 통해 복귀해 곧장 우승을 차지한 세계랭킹 2위 릴리아 부(미국)도 우승 후보로 꼽을 만하다. 세계 3위 인위닝(중국)은 타이틀 방어에 나서며, 이달 초 US여자오픈을 제패한 세계랭킹 6위 사소 유키(일본)는 메이저대회 2연승을 노린다.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는 2016년 이 대회가 열렸다. 당시엔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연장전에서 따돌리고 우승한 바 있다. 헨더슨과 리디아 고 모두 올해 대회에도 출전한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무릎 수술을 받은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3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7월 열리는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무릎 수술 조코비치 7월 파리올림픽 출전

7월1일 워블던은 불투명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에서 3위로 밀려난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7월 개막하는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한다.

AP통신은 “조코비치의 파리올림픽 출전을 세르비아 올림픽위원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19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랭킹 3위 조코비치는 이달 초 프랑스오픈 준준결승을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기권했다. 그는 기권 후 오른쪽 무릎 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이 잘 됐고, 최대한 빨리 코트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코비치가 파리올림픽에 나올 경우 통산 5번째 올림픽 출전이 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식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며 2012년 런던과 2021년 도쿄 대회에서는 3~4위전에서 졌다.

복식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 다만 조코비치는 7월 1일 막을 올리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워블던에는 출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스카이드일리·연합뉴스

역대 최고령 출전 ‘페페’... 풀타임 활약 새 역사 썼다

2024유럽축구연맹(UEFA) 축구선수권 대회(유로2024)에 출전 중인 포르투갈 대표팀의 중앙수비수 페페(FC 포르투)는 1983년 2월생이다. 만 나이 41세로 이번 대회 최고령자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다른 선수 보다 무려 20세 많은 페페가 유로2024에서 새 역사를 썼다. 페페는 19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유로 2024 조별리그 F조 1차전 체코전에 선발로 출전, 풀타임을 뛰며 팀의 2-1 역전승에 힘을 보탤다.

3-4-3 전형의 중앙 센터백으로 나선 페페는 포르투갈 수비진을 굳게 지켰고, 페페가 중심이 된 포르투갈 수비진은 1골만 실점하며 귀중한 첫 승을 신고했다. 이날 출전으로 페페는 41세 113일의 나이로 유로 본선에 출전, 역대 유로 대회에 나선 역대 최고령 선수라는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종전 기록은 2019년 은퇴한 헝가리 국가대표 골키퍼 키라이 가보르가 기록했던



41세의 포르투갈 대표팀의 수비수인 페페가 19일(한국시간) 유로2024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뒤 포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40세 86일 출전 기록이었다. 하지만 골키퍼와 필드 플레이어와의 출전 기록은 질적으로 차이가 크다.

2001년 프로에 데뷔한 그는 마리티무와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베식타쉬(튀르키예)를 거쳐 무려 24번째 프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보다 더 어린 감독들도 적지 않을 정도의 나이가 됐지만 페페는 지난 시즌에도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22경기에 출전하는 등 한 시즌 동안 공식전 34경기

를 소화했다.

2017~18시즌부터 꾸준히 한 시즌 동안 33경기 이상을 소화하고 있을 정도로 나이를 잊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덕분에 포르투갈 국가대표로도 여전히 선발돼 유로 본선에 나섰다.

단순히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뿐만 아니라 페페는 이날 패스 성공률 93%와 태클 성공 2회(성공률 67%), 지상볼과 공중볼 결합 성공률 각각 67%와 100%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볼 소유권을 획득한 횟수는 무려 11차례나 됐다. 축구 통계 업계 유타에 따르면 유로 2024 조별리그 1차전 전체 선수를 통틀어 최다 기록이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 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